한 · 일 고대 나막신의 유형별 특징연구

이 호 정 · 조 우 현⁺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수료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The Characteristics of Types on Ancient Wooden Shoes(Namagsin) of Korea and Japan

Ho Jung Lee · Woo Hyun Cho⁺

Ph. D. Candidat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3. 25, revised date: 2015. 8. 6, accepted date: 2015. 9. 4)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tudy the background of how the shape of the wooden shoes developed and worn by *Koreans* and *Japanese* in the ancient times by sorting and examining the types and shapes. Relevant bibliography, which are mainly related to the excavated wooden shoes from 3 B.C.E to C.E. 8., were used as research materials. The formation of wooden shoes required easy access to raw materials -which is trees- for produ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both *Korea* and *Japan* made the flat wooden shoes using cuboid wood. Both countries bore a hole on a specific location to distinguish the right foot and left foot, however the style of the heel was different in the two countries. The *slip-on(Undu-hyeong)* wooden shoes were also common in both countries. The *slip-on* had no-heels and was made by digging-out a piece of the cuboid wood. Some *slip-ons* made by the *Japanese* had furrows on the bottom, and they were known to make different types of the *slip-on* wooden shoes depending on the purpose. Observation of the wearing methods show that commonality can be found between the wooden shoes of *Korea* and *Japan*, and this indicates that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Silla/Baekje* and *Japan* took place from the 4th to the 6th century. Also, the flat wooden shoes in *Japan* developed rapidly, as the shoes became an integral part of its life and culture, which was closely tied to agriculture. Eventually, due to the difference in climate and life-style, the *slip-ons* became the primary type of wooden shoes in *Korea*, while the flats became the main type of wooden shoes in *Japan*. It is, however, clear that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closer, the cultural exchanges regarding the wooden shoes were considerable.

Key words: ancient(고대), flat wooden shoes(평면형 목제신발), *Japan*(일본), *Korea*(한국), *Namagsin*(나막신), *Silp-on(Undu-hyeong)* wooden shoes(운두형 목제신발)

I. 서론

신발은 각 지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요소들을 반영하며 다양한 구조와 형태로 생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본 연구의 대상인 나막신은 일반적으로 나무로 제작된 신발이며, 주로 비가 오는 날이나 습지에서 착용하였다.

중국에서는 나막신을 극(屨)이라고 하였으며, 석명(釋名)에는 ‘흙길을 다닐 수 있는 나무신을 ‘극’이라고 부른다.’¹⁾라고 기록되어 있다(Lee, 1994). 또한 Park(1983)은 석명의 기록 중 ‘굽이 있는 것은 목극(木屨)이고, 굽이 없는 것은 목리(木履)이다.’²⁾라는 내용을 토대로 목제(木製)신으로서의 목극과 목리는 같은 의미임을 설명하였다. 동진(東晉)시기에 편찬된 수신기(搜神記)에는 ‘예전에 만들어진 극을 살펴보면 발 앞쪽 머리 부분 모양이 여자의 것은 둥근형, 남자의 것은 장방형이다. 이렇게 남녀의 것을 구분 할 수 있다.’³⁾는 기록이 남아 있다(Lee, 1994). 또한 오늘날 한국의 민속학적 관점에서는 나막신에 대하여 ‘나무로 만든 신, 나무신이 와전이 되어서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Korea Folk Dictionary, 1994). 한국의 나막신과 관련된 고대의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조선 시대 이후의 기록은 『성호사설(星湖僞說)』,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알려진 한국의 나막신은 일본의 게타(下駄, げた)와 같이 평판(平板)의 형태에 고정용 끈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착용되다가 차츰 사방을 막고 ‘八’자형의 굽을 다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Park, 1983)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출토되는 유물의 수는 많지만, 고대 나막신에 관한 기록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현재까지의 나막신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Park(1983)은 1980년대에 조선시대 나막신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목제신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Nam(1987)은 나막신의 기원, 종류, 제작과정을 소개하면서 일본 게타와 함께 고찰하였

으며, Cho(1985)는 나막신을 응용하여 화기(火器)를 디자인하는 연구를 하였다. 2000년대 이후 평면형 나막신이 출토되면서 고대 나막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일 삼국의 고대 나막신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평면형 나막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In, 2005). 또한 일본의 고고학자인 Motomura(2010)는 한일 양국의 평면형 목제신발에 대한 연구를 한국에서 발표하였으며, Kim(2003)은 조선시대 나막신의 형성 및 발달 과정을 네덜란드인인 헨드릭 하멜(Hendrik Hamel)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사적인 관점에서의 신발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않으며, 특히 ‘나막신’과 같이 하나의 특정 아이템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고찰한 연구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고대 나막신에 대한 고찰로, 양국 고대 나막신의 형성배경 및 형태적 특징과 그 착용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고대 나막신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에서 나타나는 유형별 나막신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징과 시대적 상황을 통찰하여 양국 고대 나막신 착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첫째, 고대 나막신의 개념과 발생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양국에서 출토된 고대 나막신을 형태에 따라 평면형과 운두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고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나막신의 특징에 대한 비교 및 당시 양국의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착용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 자료는 기원전 3C~기원후 8C 시기의 국내에서 출토된 유물 7점과 일본에서 출토된 목제나막신 유물을 중심 대상으로 하였고, 일본 석제 나막신 유물 및 박물관 전시자료와 관련 선행 연구 및 보고서, 문헌, 도록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막신의 구조와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신발의 형성 및 정착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써의 활용을 기대한다.

1) 〈釋名〉曰：屨，搯以踐泥也。爲双足搯以踐泥也。

2) 屨及木履之下有齒者

3) 〈搜神記〉曰：昔作屨，婦人圓頭，男子方頭。蓋作意欲別男女也。

II. 고대 나막신의 형성배경

나무로 제작된 신발류는 아시아와 유럽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방이 막힌 운두형 나막신은 한국의 것으로, 평판형의 나무에 끈을 연결하여 착용하는 평면형 나막신은 일본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원전 3C부터 기원후 8C 사이에 한국과 일본에서 출토된 목제신발을 고대 나막신으로 정의하고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시기와 범위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일본에서 나막신 유물이 출토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기원전 3C인 야요이시대(弥生時代)부터이다. 또한 양국에서 출토된 평면형 나막신의 형태와 구조는 오늘날 보편적으로 알려진 나막신 형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대 평면형 나막신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특징은 4장에서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특징을 가진 유물자료가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8C까지를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고대 나막신에 해당하는, 오늘날 확인이 가능한 최고(最古)의 유물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Zhèjiāng Province)의 자호유적(慈湖遺蹟, Cíhú yíjī)에서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자료이다(Fig 1). 이 지역은 중국 신석기 문화 중 양저 문화의 발달된 기술과 생활문화가 잘 나타나는 곳이다. 발견된 나막신은 2짝으로 모두 왼쪽용이고, 발 모양에 맞추어 가공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21.2/24, 너비 7.4~8.4/7~11cm

의 평면형 나막신이다. 또한 비슷한 시기의 변가산유적(卜家山遺蹟, biànjāshān yíjī)에서도 평면형 나막신(Fig 2)이 출토되었다. 이 나막신은 6개의 끈 구멍의 밑 부분을 넓게 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Zhao, 2012). 이와 같이 끈 구멍의 밑 부분을 넓게 제작한 것은 고정용 끈의 매듭부분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행 시에 매듭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매듭을 튼튼하게 고정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막신 제작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무이다. 나무는 풍토에 따라 자연적으로 식생(植生)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나무를 얻을 수 있다. 즉 나무는 어느 지역에서나 비교적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로, 다양한 용도로의 가공 및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에서도 나막신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종류들이 발달하였는데,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나막신 제작에 소나무나 오리나무를 사용했다고 한다(*Korea Folk Dictionary*, 1994). 이 중 소나무는 국내 전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재질이 좋아 건축재나 목제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대 나막신 제작에도 자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로 삼나무(杉, スギ)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본 내 중요한 수종으로 내구성이 크며 건조속도가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삼나무뿐만 아니라 히노키(ヒノキ)로 알려진 노송나무와 밤나무(クリ)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나막신 제작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었다(Akita, 2002). 현재 착용되고 있는 일본의 게타는 주로 삼나

〈Fig. 1〉 Flat Wooden Shoe in Jiahu site, China
(Zhao, 2012, p. 80)

〈Fig. 2〉 Flat Wooden Shoe in Biangshan site, China
(Zhao, 2012, p. 80)

무와 오동나무로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신발이라는 복식품은 지역과 국가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떠한 문화적 교류나 전파가 없는 각각의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나 특징을 가진 신발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경조건이나 문화수준이 유사하거나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기인한 공통성으로 볼 수 있다(Ogawa, 1981). 따라서 나막신을 제작하기에 알맞은 나무가 발달된 곳이라면 지역과 민족을 불문하고 나막신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서로 어떠한 교류나 전파 없이 개별적으로 고대 나막신 문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나막신 문화의 발생과 형성과정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우나, 양국에서 출토된 고대 나막신의 형태 및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한·일 나막신 문화의 착용배경에 대한 논의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일 고대 나막신의 유형과 종류

한·일 양국 고대 나막신의 유형은 형태적 특징에 따라 크게 평면형과 운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국에서 출토되고 있는 평면형과 운두형 나막신의 각 부분의 명칭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먼저 선행연구(Akita, 2002; Motomura 2010)에 나타난 게타 명칭을 참고하여 평면형 나막신의 각 부분 명칭(Fig 3)을 살펴보면 판자는 발을 엮기 위

한 판 부분을 말하며 발과 접촉하는 부분을 판자 윗면(upper side of sole), 그 반대의 지면 쪽을 판자 아랫면(bottom side of sole)이라고 하였다. 판자 아랫면에 앞뒤로 설치되는 구조물을 굽이라고 하며, 위치에 따라 앞굽(front heel, 前齒), 뒷굽(back heel, 後齒)으로 구분하였다. 굽의 측면 모양은 시기나 출토지에 따라 판자와 수직으로 '11'자형이 되거나, 산모양의 '八'자형으로 열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끈 구멍은 일반적으로 3개이며, 지역과 시기 혹은 착용방법에 따라 구멍수와 위치는 다르다. 끈 구멍의 위치에 따라 앞구멍(front hole, 前孔)과 뒷구멍(back hole, 後孔)이라고 하였다.

운두형 나막신은 신코, 신울, 운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 명칭의 사전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New Age Korean Dictionary, 2001). '신의 앞 끝 부분의 뽕족한 곳'을 신코(the top of a shoe)라고 하며, 신울(the outer rim of a shoe)은 '신의 양쪽 가장자리에 댄 발등까지 올라오는 울타리'이다. 신울은 운두(height of outer rim)와 신울의 두께(thickness of outer rim)로 구성된다. 본래 운두는 '그릇이나 신 따위의 둘레의 높이'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울의 높이로 파악하였다(Fig 4). 이러한 각 유형별 나막신의 부분 명칭과 구조를 바탕으로 양국에서 출토된 고대 나막신 자료의 종류 및 형태 특징을 고찰하였다.

〈Fig. 3〉 Diagram of Flat Wooden Shoe and Parts Name
(Illustration by author)

〈Fig. 4〉 Diagram of Silp-on Type
(Undu-hyeong) Wooden Shoe and Parts Name
(Illustration by author)

1. 한국

1) 평면형 나막신

한국의 평면형 나막신은 총 5점으로, 경산 임당동(3C말~4C), 아산 갈매리(4~5C), 부산 기장 가동(4~6C, 주로 5C로 추정함), 부여 능산리사지(6C)와 익산 미륵사지(6C)에서 각각 한 짝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첫 번째 자료는 경상북도 경산 임당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나막신이다(Fig 5). 임당동 고분군은 경산지역에 위치한 압독국(押獨國) 사람들의 취락지였던 곳으로 최대 고분군이다. 압독(押獨)은 통일신라 때까지 경산지역을 부르던 옛 지명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신라본기(新羅本紀)」에는 파사 이사금(婆娑 尼師今) 23년에 압독국이 스스로 항복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지리지(地理志)에는 압랑소국으로 기록되어 있다(Daegu National Museum [DNM], 2000). 나막신은 2C중엽~4C중엽에 생성된 저습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의 밀집도 양상으로 보아 4C에 활발하게 사용하였던 곳으로 보인다(Woo, 2013). 따라서 4C대로 추정되는 장방형의 오른쪽용 나막신 1짝은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나막신은 길이 25, 앞너비 10.5, 뒤너비 9, 전체 앞높이 5.8, 뒤높이 5.3cm이며, 굽은 높이 5, 두께 2.7cm이다. 출토당시 나무 7조각의 파편의 조각으로 분리되어 있어, 수습 후 접합하여 현재의 상태로 복구하였으며, 하나의 나무로 판자와 굽을 제작한 연치형(連齒形)이다.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판자의 윗면, 판자 아랫면과 굽의 연결부분에 가공한 흔적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가공의 흔적은 출토물이 실생활에서 착용되었던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또 다른 특징은 5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 선행연구자들은 발과 신발의 고정법이 달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방법은 5개의 구멍에 각각 고리를 만들고, 긴 끈 하나로 5개의 고리를 관통하여 발뒤꿈치 쪽에서 고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4개의 뒷구멍에 끈을 X형으로 교차시켜 연결하고 그 교차점과 앞구멍의 끈을 연결하는 것이다(In,

2005).

두 번째 자료는 아산 갈매리 III유적에서 출토된 나막신이다(Fig 6). 갈매리 유적은 주로 원삼국-백제 시대(3~5C)의 주거지와 수로가 위치한 생산유적지이다. 나막신을 비롯한 목재유물은 III지역의 수로 전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는데 수로 내부의 목재밀집지 주변에는 깊고 넓은 웅덩이군이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되었다(Shuichi & Sasaki, 2007). 갈매리 유적에서 출토된 나막신 자료는 시기적으로 4~5C의 것이며, 장방형의 오른쪽용 1짝이다. 3개의 구멍이 있고 길이 24.5, 너비 9.7, 전체높이 2.5cm이며, 굽은 1cm로 낮은 편이다. 탁나무의 판목을 마름질하여 판자와 굽을 연치형으로 제작하였으며, 톱 등의 다양한 목공도구를 사용하여 전면 가공한 흔적이 있다(Lee et al, 2007). 또한 지면과 접하는 부분이 마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hinya, 2007).

세 번째, 부산 기장 가동유적에서 출토된 나막신(Fig 7)은 특이한 점이 많은 자료이다. 기장 가동유적은 4~6C전반에 삼국시대 해당하는 마을유적이다. 주거지와 인접한 저습지에서 당시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University of Ulsan Museum [UUM], 2008). 5C의 자료로 보이는 나막신은 판자의 전체적인 형상으로 보아 오른쪽용으로 추정되며, 길이 23.4, 너비 9.3, 전체높이 3.4, 굽 1.6cm이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독립된 4개의 단면 사다리꼴 굽이 판자 아랫면의 앞, 뒤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출토물에는 2개의 단면 굽만 남아있다는 점이다(Motomura, 2010). 또한 판자는 연치형으로 발의 형태에 맞추어서 제작하였다. 판자의 가장 자리에는 아랫면의 방향에서 윗면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뚫린 9개의 끈 구멍이 있다(UUM, 2008). 끈 구멍의 수와 뚫린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측해보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착용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짚신과 같은 다른 신발이나 직물 혹은 가죽 등의 소재를 고정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In, 2005; Motomura, 2010).

네 번째, 부여 능산리사지 유적에서 출토된 나막신(Fig 8)은 왼쪽용 1짝으로, 6C 백제 지역에서 착용

〈Table 1〉 Characteristic of Flat Wooden Shoe in Korea

Discovered at Contents	Imdang-Dong, Gyeongsan	Galmae-Ri, Asan	Ga-Dong, Gijang, Busan	Neungsanri Temple Site, Buyeo	Mireuksa Temple site, Iksan
Image	〈Fig. 5〉 Flat Wooden Shoe 1 (Bokcheon Museum [BM], 2010, p. 58)	〈Fig. 6〉 Flat Wooden Shoe 2 (BM, 2010, p. 48)	〈Fig. 7〉 Flat Wooden Shoe 3 (BM, 2010, p. 56)	〈Fig. 8〉 Flat Wooden Shoe 4 (BM, 2010, p. 52)	〈Fig. 9〉 Flat Wooden Shoe 5 (BM, 2010, p. 53)
Era	late 3rd-4th (Silla)	4th-5th(Baekje)	4th-6th (Silla/presume)	6th(Baekje)	6th(Baekje)
Size(cm) (L×W×H)	25×10.5×5.8(F) 25×9×5.3(B)	24.5×9.7×2.5	23.4×9.3×3.4	24×9×5.7	19×9.5
Shape	• Rectangle • Right Shoe of a pair • 5 holes	• Rectangle • Right Shoe of a pair • 3 holes • Low-heel	• Right Shoe of a pair • 9 holes • 2-heels(originally 4-heels)	• Oval • Left Shoe of a pair • 3 holes	• Rectangle • 6 holes
Raw Material	-	• The paper mulberry	-	• Pine tree	-
Manufacture method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Carving trace at heels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Carving trace at entire shoe	• Trim to foot shape • Carving at sole	• Trim to foot shape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Wear or not	• Wear(presume)	• Wear	-	• Wear(presume)	-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전체적인 규모는 길이 24, 너비 9, 전체높이 5.7, 앞굽 3.5cm이며, 3개의 구멍이 있다. 신발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백제의 신발류에는 일정 단위의 길이가 적용되었을 가능성, 즉 신발의 제작에도 영조척(營造尺)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Buyeo National Museum [BNM], 2003). 능산리사지 나막신은 567년에 절이 건립되기 이전 시기에 조성된 수로에서 발견되었는데, 7차 조사에서 수습되었으며, 국내 유일한 타원형의 나막신이다. 소나무 판목으로 추정되는 소재로 연치형으로 제작하였다(In, 2005).

마지막으로 살펴볼 자료는 백제 지역이었던 익산 미륵사지 유적에서 출토된 6C(추정) 나막신이다(Fig 9). 판자는 장방형으로 길이 19, 너비 9.5cm이다. 연

치형이며, 굽의 형태는 판자와 굽이 수직으로 된 '11' 자형이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첫째, 판자의 가장자리 앞, 중앙, 뒷부분에 총 6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미륵사지 나막신이 가동 유적 나막신의 9개의 구멍과 계보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나 그 착용법은 달랐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 다른 특징은 판자의 가로 폭과 굽의 가로 폭의 차이이다. 즉 굽 전체의 크기가 판자보다 작게 제작된 점인데, 이는 구멍의 위치와 깊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행시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추론하였다(Motomura, 2010).

위에서 언급한 5점의 나막신에 대한 특징을 다음 〈Table 1〉으로 정리하였다.

2) 운두형 나막신

한국의 운두형 나막신은 부여 쌍북리의 두 짝, 안성 죽주산성의 약 1/2짝의 출토물이 남아있다<Table 2>.

부여 쌍북리 173번지 유적지에서 한 쌍으로 출토된 운두형 나막신<Fig 10>은 5~6C 백제지역의 것이며, 하나의 나무를 파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BM, 2010). 이 유적지는 백제 사비기에 해당되는 곳으로 크게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는데, 나막신은 이 중 제3문화층의 집수를 위해 설치되었던 배수로에서 발견되었다(Dongbang Institute of Heritage [DIH], 2013). 쌍북리 나막신은 두 짝 모두 발등을 덮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신코 부분이 둥글다. 고정용 끈을 위해 발등에 4개, 뒤꿈치에 2개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 또한 발등 면에는 4.5cm의 장방형 투공이 되어있는데, 이는 착용감과 통풍을 고려한 듯 하나, 나막신이 실제 착용되었던 것인지, 특수한 기능이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

의가 필요하다. 각 짝의 규모를 살펴보면, 유물번호 227-1은 길이 외30.2, 내28.3, 너비 외12.2, 내8.2cm로 등면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 유물번호 227-2는 길이 외30, 내27.5, 너비 외11.9, 내9.5cm이며, 발등면과 바닥의 일부가 결실되어 있다(DIH, 2013).

안성 죽주산성 출토 나막신<Fig 11>은 6~7C의 신라시대 집수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출토지인 죽주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에 방어로 주목받았던 산성이다. 죽주산성 나막신은 출토될 당시부터 약 1/2정도 잔존한 형태였으며, 하나의 나무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현재 잔존길이 25, 너비 11, 운두높이 7cm이며, 바닥은 편평하고, 신코 부분의 형태가 둥글고, 바닥 부분에서 신코 쪽으로 살짝 위로 들리는 것이 특징적이다(HanBeak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e Heritage [HBRICH], 2010).

한국에서 출토된 평면형과 운두형 나막신의 특징을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평면형 나막신의 길이는 19~25, 너비 9~10.5, 전체높이 2.5~5.8cm 사

<Table 2> Characteristic of Silp-on(Undu-hyeong) Wooden Shoe in Korea

Discovered at Contents	Ssangbukri 173 Site, Buyeo	Jukjusanseong Fortress, Anseong
Image	<Fig. 10> Silp-on Wooden Shoe 1 (DIH, 2013, Color picture 2-1)	<Fig. 11> Silp-on Wooden Shoe 2 (HBRICH, 2010, p. 20)
Era	5th-6th(Baekje)	6th-7th(Silla)
Size(cm) (L×W×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 227-1(Left) -30.2×12.2(outside), 28.3×8.7(inside) • No 227-2(Right) -30×11.9(outside), 27.5×9.5(inside) 	25×11×7(remains)
Sh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 vamp and outsole of shoes disappeared • Rectangular holes in vamp • Holes in vamp and quater of shoes both sides • No-h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proximately 1/2 of shoe remains • Beoseon(socks) shape toe cap • Flat sole
Manufacture method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presume)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presume)

〈Table 3〉 Characteristic of Flat Wooden Shoe in Japan

Discovered at Contents	Yamanohana, Hamamatsu-shi, Shizuoka-ken	Hoshikanishi, Moriyama-shi, Shiga-ken	Koseisenkankei, Otsu-shi, Shiga-ken	Anou, Otsu-shi, Shiga-ken
Image	〈Fig. 12〉 Flat Wooden Shoe 6 (Akita, 2002, p. 54)	〈Fig. 13〉 Flat Wooden Shoe 7 (Akita, 2002, p. 71)	〈Fig. 14〉 Flat Wooden Shoe 8 (Akita, 2002, p. 68)	〈Fig. 15〉 Flat Wooden Shoe 9 (Akita, 2002, p. 68)
Era	5th	5th	6th	6th
Size(cm) (L×W×H)	24.1×9.7×7.6	23.8×11.3×4.4	21.6×11.1×1.6	19.4×10×2.2
Sh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tangle • Left Shoe of a pair • High-heel • 3 ho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al • Right Shoe of a pair • 3 holes • '八'shape hee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al • Left Shoe of a pair • 3 holes • No-he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tangle • Right Shoe of a pair • 3 holes • No-heel
Manufacture method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Repai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Carving trace at whole body of shoe

이의 규모였다. 미륵사지 출토 나막신을 제외하고 모두 성인용 사이즈의 신발로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형태 및 제작방법에서 하나의 나무로 판자와 굽을 만드는 연치형으로 제작하였다는 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가공한 흔적이 나타나 실생활에서 착용하였다는 점, 굽이 '11'자형이라는 점 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끈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 수가 다양하게 나타나, 한국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에 신발을 고정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운두형 나막신의 경우 신코가 둥글고, 굽이 없다. 또한 장방형의 나무 하나를 파서 전체 형태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일본

1) 평면형 나막신

일본의 평면형 나막신은 한국에 비해 출토되는 양이 많고, 현재에도 착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본 내의 평면형 나막신은 5C(古墳시대)부터 다수의 유물들이 출현하였고, 근세 시기에 이르러서 일반 대중들의 신발로 보급되었다고 한다(Akita, 2002). 많은 자료들 중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야마노하나(静岡県 浜松市 山ノ花/しずおかけん はままつし やまのはな)유적, 시가현 모리야마시 호시키니시(滋賀縣 守山市 欲賀西/しがけん もりやまし ほしかにし)유적, 시가현 오쓰시 코세이센칸케이(滋賀縣 大津市 湖西線關係/しがけん おおつし こせいせんかんけい)유적, 시가현 오쓰시 아노우(滋賀縣 大津市 穴太/しがけん おおつし あのう)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형태와 특징을 고찰하였다(Table 3).

처음으로 살펴볼 평면형 나막신은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야마노하나 유적의 큰 도랑에서 출토된 5C의 장방형 왼쪽용 자료이다(Fig 12). 길이 24.1, 너비 9.7, 전체높이 7.6cm⁴⁾로 다른 자료들에 비해 굽을 포

4) 이후 일본 나막신 자료의 규모는 축도된 이미지를 측

합한 전체 높이가 높다. 3개의 구멍이 있으며, 하나의 나무를 마름질하여 판자와 굽을 제작한 연치나막신이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시가현 모리야마시 호시카니시 유적의 오른쪽용 연치나막신이다(Fig 13). 타원형이며, 길이 23.8, 너비 11.3, 전체높이 4.4, 굽 1.3cm이다. 3개의 구멍이 있고, 굽은 판자 아랫면과의 접촉 부분부터 '八'자형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세 번째 자료는 시가현 오쓰시 코세이센칸케이 유적의 왼쪽용 나막신이다(Fig 14). 6C에 착용했던 것으로 오래된 수로에서 발견되었으며, 길이 21.6, 너비 11.1, 높이 1.6cm이다. 타원형으로 굽이 없으며, 3개의 구멍이 있다. 본 출토물의 주목할 점은 판자가 두 개의 판목을 연결한 상태라는 점인데, 이는 나막신을 수선한 흔적이라고 한다(Akita, 2002). 수선한 흔적을 살펴보면 두 개의 판목을 연결하기 위한 장방형의 홈이 3군데 있으며, 이 홈에 각 2개씩 총 6개의 판자연결 구멍이 뚫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시가현 오쓰시 아노우 유적에서 출토된 장방형의 오른쪽용 나막신이다(Fig 15). 6C로 추정되는 자료로 길이 19.4, 너비 10, 전체높이 2.2cm이며, 굽이 없다. 연치나막신으로 3개의 구멍이 있으며, 판자 윗면은 나뭇결을 따라 다듬은 흔적이 있어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운두형 나막신

일본의 운두형 나막신은 평면형에 비해 그 출토수가 적으며, 야요이시대부터 그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야요이시대 이후의 자료를 중심으로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첫 번째 자료는 후쿠오카시 주로쿠초우쓰이지(福岡市 拾六町ツイジ/ふくおかし じゅうろくちょうツイジ)유적에서 출토된 운두형 나막신이다(Fig 16). 야요이 중·후기의 것으로 보이며, 잔존 길이 18, 너비 12, 운두높이 2.7cm로 발부리, 발등부분, 바닥면이 소실되어 전체 형태는 알 수 없다. 굽이 없으며, 신울의 측면 부분에 고정 끈을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장방형의 나무 하나를 깎아내어 전체 형태를 제작하였다.

두 번째 나막신은 후쿠오카시 나카큐히라(福岡市 那珂久平/ふくおかし なかきゅうひら)유적에서 출토된 것(Fig 17)으로, 쓰이지 나막신과 같은 시기의 자료이다. 길이 25.8, 신코너비 11.5, 뒤꿈치너비 7.5, 운두높이 3.5cm이며, 신발 바닥에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골을 만들어준 점이 특이하다(Akita, 2002). 신울의 측면에 끈 고정용 구멍이 있으며, 장방형의 나무로 전체 형태를 제작한 것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운두형 나막신은 시마네현 히메바라니시(島根縣 姫原西/しまねけん ひめばらにし)유적의 야요이 후기 출토물이다(Fig 18). 길이 35.5, 신코너비 16.4, 뒤꿈치너비 8.2cm로, 크기가 매우 큰 신발이기 때문에 착용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발판부분에 4군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인데, 이 구멍을 통해 끈을 연결하여 착용하였다면 매우 불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다른 특수한 기능이나 목적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Akita, 2002).

마지막 자료는 사가현 이시키(佐賀縣 石木/さがけん いしき)유적에서 출토된 고분시대 운두형 나막신이다(Fig 19). 앞의 히메바라니시(ひめばらにし)나막신과 같이 크기 때문에 착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길이 41, 신코너비 20, 뒤꿈치너비 7.3, 운두높이 5.5cm이다. 굽이 없으며, 신울 측면에 구멍이 뚫린 흔적이 있다.

일본의 평면형과 운두형 나막신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면형 나막신의 전체 규모는 길이 14.1~24.1, 너비 5.9~11.3, 전체높이 1.6~7.6cm 사이로 나타나며, 모두 끈 구멍은 3개로 그 방식이 같았다. 형태 및 제작방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타원형의 판자 형태가 많으며, 고대 시기일수록 하나의 나무로 전체 형태를 제작하는 연치나막신이 대부분이며, 중세 이후부터 굽을 개별적으로 제작한 자치나막신도 나타났다. 또한 5C까지의 자료들은 각각의 것들이 형태적으로 상이한 나막신들이 제작되었으며, 6C 이후에는 한 지역에서 많은 양의 자료가 출토되면서, 각 유적별로 형태적인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한다(Motomura,

척을 통해 계산하여 추정한 수치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Table 4〉 Characteristic of Silp-on(Undu-hyeong) Wooden shoe in Japan

Discovered at Contents	Jurokuchou Tsuiji, Fukuoka-shi	Nakakyuhira, Fukuoka-shi	Himebaranishi, Shimane-ken	Ishiki, Saga-ken
Image	〈Fig. 16〉 Silp-on Wooden Shoe 3 (Akita, 2002, p. 7)	〈Fig. 17〉 Silp-on Wooden Shoe 4 (Akita, 2002, p. 7)	〈Fig. 18〉 Silp-on Wooden Shoe 5 (Akita, 2002, p. 7)	〈Fig. 19〉 Silp-on Wooden Shoe 6 (Akita, 2002, p. 7)
Era	mid-late yayoi	mid-late yayoi	late yayoi	Kofun period
Size(cm) (L×W×H)	18×12×2.7(remains)	25.8×11.5×3.5(F) 25.8×7.5×3.5(B)	35.5×16.4(F) 35.5×8.2(B)	41×20×5.5(F) 41×7.3×5.5(B)
Sh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me vamp and outsole of shoes disappeared • No-heel • Holes in both sides of wall(W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ooves at the bottom of shoes • No-heel • Holes in both sides of wall(W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Holes in sole (unusual) • Large siz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heel • Holes in both sides of wall(Wul) • Large size
Manufacture method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2010). 일본의 운두형 나막신은 장방형의 나무 직육면체의 안쪽을 파서 전체형태를 제작하였고, 굽이 없다. 그러나 굽 대신 신발 바닥 부분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마찰용 골을 깎아놓았으며, 시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한·일 고대 나막신의 착용배경

앞 장에서 파악한 나막신의 특징과 용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토대로 한·일 양국의 유형별 나막신의 착용배경을 고찰하였다.

각 유형별 나막신의 착용배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일본의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고대 일본의 평면형 나막신, 즉 중세 시기 이전의 게타에 나타나는 몇 가지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판자의 형태는 타원형과 장방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고대에는 타원형의 나막신이 주로 착용되었다. 판자와 굽

이 하나의 나무로 제작된 형태인 연치(連齒)게타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중세 이후부터 판자와 굽이 별도로 제작된 차치(差齒)게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구멍의 위치에 따라서도 지역과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데, 앞구멍은 판자의 길이를 중심으로 하여 구멍의 위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즉,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고대의 것일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굽의 형태가 산모양의 ‘八’자형으로 열릴수록 고대의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굽 전체가 ‘八’자형으로 열리는 것은 7C 이후의 게타에서만 확인 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Motomura, 2010).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양국 평면형 나막신의 특징을 고찰한 결과, 형태 및 제작방법 등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타났다. 먼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의 나무 조형으로 굽과 판자부분을 제작한 연치형 나막신이며, 끈을 고정하기 위한 구멍을 뚫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출토된 나막신의 판

자형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장방형과 타원형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타원형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장방형 나막신의 비율이 더 높다. 또한 끈 구멍의 숫자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신발의 착용방식이나 고정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굽의 측면 모양에서 한국의 경우 '11'자형의 굽 모양이 주로 나타나며, 일본은 '八'자형으로 벌어지는 모양이 주가 되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한편 운두형 나막신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될 만한 형태적 특징이 제시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양국 모두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유물 자료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양국에서 출토된 운두형 나막신 자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굽이 없고, 장방형의 나무 조형을 파서 전체 형태를 제작하였다. 반면 신코 형태는 한국의 경우 등글고, 일본은 전체적으로 발 모양을 본떠 평편한 편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굽 대신 신발 바닥 부분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골을 깎아 만들어 놓았으며, 다양한 크기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착용의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의 유형별 나막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한편 양국에서 나막신이 착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해양성 기후인 일본은 야요이시대부터 벼농사가 급격히 발달되어 일찍이 정착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목제도구들이 발달하였고, 그

중 농사도구로써의 나막신인 타게타(田下駄)도 사용하였다. 농업 중심의 정착된 생활양식 구조에 의해 도구로서 발달되기 시작한 평면형 나막신은 5C를 지나면서 신발로써의 착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양상을 살펴보면 5C의 유적지인 시즈오카현, 시가현 등의 평면형 나막신은 나라(奈良), 히로시마(広島)등의 남쪽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었다.

그에 비해 한국에서는 나막신의 착용 및 발달에 관한 구체적인 배경에 관하여 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 나막신의 착용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출토된 나막신 자료와 당시의 주변 상황을 토대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출토된 평면형 나막신은 백제 지역의 4~6C 자료 3점과 신라지역의 4~5C 자료 2점이 있다. 이 중 갈매리, 임당동 유적의 나막신은 일본 고분시대 계타의 특징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양국 나막신의 계보적 관계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두 자료는 시기상 현재 출토되고 있는 일본 평면형 나막신 유물들보다 이른 시기로 추정되기 때문에 평면형 나막신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Motomura, 2010).

또한 일본에서는 6C부터 평면형 나막신의 출토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한 지역에서 많은 양의 자료가 출토되었으며, 각 유적지별로 유사한 형태의 나막신이 출토되어 지역별 특징이 나타났다. 그 중 시가현 아노우 유적과 그 주변 지역은 백제의 도래민(渡來民)들의 거주지로 알려진 곳으로, 이 지역에서

<Table 5>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the type of wooden shoe in Korea and Japan

Contents Type of wooden shoe	Similarities	Differences
Flat wooden sh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 Distinguish right or left shoe by the position of front hole • Carving tr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le's shape(Korea: Rectangle/Japan: Oval) • The number and location of the holes • Heel's shape(Korea: '11'shape heels / Japan: '八'shape heels)
Silp-on (Undu-hyeong) wooden sho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heel • Process a piece of cuboid wo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ape of the Toe cap (Korea: Round/Japan: Flat) • The purpose of wearing shoes

출토된 고분 및 벽주건물지, 토기들의 형태 및 특징이 모두 백제의 것과 같았다(Seo, 2009). 따라서 아노우 유적 출토 나막신은 당시 백제와 일본 사이의 교류 및 관계가 확실하게 있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자료라고 사료된다.

나막신이 특수한 용도로 활용된 점에서도 그 착용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타게타라는 농업용 도구로써의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한 목적 혹은 용도를 위한 나막신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석제로 제작한 평면형 나막신 자료들은 고분시대의 그 지역의 우두머리격 인물의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그 형태나 구조가 목제나막신과 매우 유사하다.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석제를 사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배로 들여 신발을 제작했다는 점과 제기나 주술도구와 같은 권위의 상징을 나타내는 유물자료와 함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석제 나막신은 제사와 관련된 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운두형 나막신도 시기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고분시대 이전까지의 운두형 나막신은 그 수량도 적고, 각 개체간의 공통점이나 착용법에 대한 의문도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8C에는 석제 나막신과 마찬가지로 제례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Akita, 2002).

〈Fig. 20〉 Wooden Shoe in ChaeHyeopchong, Nangnang
(Photography by author, National Museum of Korea collection)

한편 양국에서 출토된 운두형 나막신은 그 형태적인 기원을 나랑 채협충의 옷칠 가죽신(漆塗革沓)으로 추정하고 있다(Akita, 2002). 옷칠 가죽신(Fig. 20)은 하부(下部)와 겉면에는 얇은 동물 가죽을 두들겨서 사용했고, 그 위에 옷칠을 하였으며 안쪽 바닥면에 높이 6cm의 목재를 넣어 제작한 신발이다(Pyeongyang-myeongseung-gujeok-bojonhoe[PMGB], 1936). 이러한 운두형 나막신은 일본에서 목답(木沓, きく

つ)이라고 지칭되며, 야요이시대의 것은 옷칠 가죽신과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지만, 끈 구멍이 없고 두신발 간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런 이유로 운두형 나막신의 발생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신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Akita, 2002). 또한 한국에서 출토된 운두형 나막신 중 부여 쌍북리에서 발견된 것은 야요이시대의 출토물에 비해 늦은 시기에 착용된 것이지만 형태적으로 공통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운두형 나막신의 교류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에서 출토된 나막신의 특징을 통해 보면 한국에서는 당시 백제와 신라 지역에서 나막신 문화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한국에 비해 이른 시기부터 나막신 문화가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평면형 나막신의 경우 양국의 출토물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계보적 관계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내 평면형 나막신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나의 신발문화로써 적극적으로 수용 및 발전되었으며, 에도시대에 이르러서는 대중적인 서민 신발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추후 조선시대의 나막신 형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운두형의 나막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운두형 나막신은 11C 이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졌다고 한다(Akita, 2002). 추후 양국의 나막신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그 종류 및 형태가 더욱 다양해졌다. 일본의 경우 출토물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양상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다양한 신발의 종류와 형태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국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신발 문화의 발전과 전파교류가 더욱 활발해졌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일 나막신 문화의 형성과 착용과정에 대한 고찰로, 고대 나막신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양국 고대 나막신 출토자료들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나막신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양국 나막신의 착용배경을 시대적 상황과 그 용도 등을 토대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대 나막신은 연치형으로 제작되었고, 앞구멍의 위치에 따라 좌우 구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 나막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원전 3C~기원후 8C까지의 목제신발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고대 나막신의 형성에는 1차적으로 나막신 제작에 적합한 '나무'라는 소재가 필요하며, 나무 식생의 풍토 요건이 갖추어진 곳이라면 소재에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막신 문화가 쉽게 성립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신발은 어떠한 관련성이 없는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달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대 나막신 형성배경의 정확한 요인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한편 나막신의 유형별 특징을 고찰한 결과, 양국의 평면형 나막신은 연치형 나막신이며, 끈 구멍을 통해 고정하여 착용한다는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판자의 형태, 끈 구멍의 숫자나 위치에 따른 착용방법, 굽의 측면 모양에서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운두형 나막신은 장방형의 나무의 안쪽을 파서 전체 형태를 제작하였고, 굽이 없다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그러나 신코의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신발 바닥 부분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골을 제작하거나 시기 혹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만들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나막신의 용도 등을 토대로 나막신의 착용배경을 고찰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나막신 착용과정 및 발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백제와 신라지역을 중심으로 평면형 나막신 문화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이 자료들은 일본의 자료와도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4C의 출토된 두 점의 자료와 백제 도래민의 영향을 받은 일본 아노우 유적(6C)에서 출토된 나막신 자료를 통해 한국이 일본 평면형 나막신의 원류일 가능성, 백제와 일본 나막신 사이의 관계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풍토, 생활양식 등의 요인들을 바탕으로 운두형 나막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 벼농사를 통한 정착생활이라는 생활양식에 따라 평면형 나막신이 착용되어 발달하였다. 타게타와 같은 농업용 도구로서 발달된 평면형 나막신은 유물 출토량의 증가 및 출토지가 확대되면서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며, 에도시대에 들어가서는 서민층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제례와 같은 특수한 목적 및 용도에 의해 석제 나막신이나 운두형 나막신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찰한 당시 양국의 나막신을 통해 양자 간에 형태적 교차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4~6C의 백제 및 신라와 일본과의 문화적 교류 및 전파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양국 나막신의 착용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화적 교류가 있었지만 결국 풍토 및 생활양식 등의 차이에 의하여 한국은 운두형 나막신을, 일본은 평면형 나막신을 적극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당시 시대의 발전과 주변 국가와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한일 양국은 신발 문화의 교류 및 발전이 더욱 활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나막신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한·일 양국에서 발달된 나막신 문화 및 계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추후 각 민족별 신발문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Reference>

- Akita, H. (2002). *Japanese wooden shoes - footwear of a god* [下駄—神のはきもの]. Tokyo, Japan: Hosei University Press.
- Bokcheon Museum (2010). *Ancient Korean footwear*. Busan, Republic of Korea: Bokcheon Museum.
- Buyeo National Museum (2003). *Weights & measures in Baekje* [百濟의 度量衡]. Buyeo, Republic of Korea: Buyeo National Museum.
- Cho, G. D. (198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lower-vase the form of clogs*(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Daegu National Museum (2000). *The ancient culture of the Apdok people* [압독 사람들의 삶과 죽음]. Daegu, Republic of Korea: Daegu National Museum.
- Dongbang Institute of Heritage (2013). *The excavation*

- report of Ssangbuk-ri site, Buyeo [부여 사비119 안 전센터 신축부지내 쌍북리 173-8번지 유적]. Chungnam: Dongbang Institute of Heritage.
-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8). *The antient wooden container of Korea - Focused on Haman Seongsan mountain fortress-* [한국의 고대목기-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Gyeongnam, Republic of Korea: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HanBeak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e Heritage (2010). Ansong Jukjusanseong fortress 4th excavation instruction committee meeting materials [안성 죽주산성 4차 발굴조사 지도위원 회의자료][PDF document]. HanBeak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e Heritage. Retrieved from http://www.hbmy.or.kr/filedownload/sub03_1/%ec%95%88%ec%84%b1%20%ec%a3%bd%ec%a3%bc%ec%82%b0%ec%84%b1%204%ec%b0%a8%20%eb%b0%9c%ea%b5%b4%ec%a1%b0%ec%82%ac%20%ec%a7%80%eb%8f%84%ec%9c%84%ec%9b%90%20%ed%9a%8c%ec%9d%98%ec%9e%90%eb%a3%8c.pdf
- In, B. S. (2005). Ancient wooden shoes research of Korea, China and Japan.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38, 109-128.
- Jang, Y. S. (2010). Imdang ruins representing the gyeong-san area [경산지역을 대표하는 임당유적]. *2010 Adult class museum ancient footwear and story of excavation*, Bokcheon Museum (pp. 119-142). Busan, Republic of Korea: Bokcheon Museum.
- Kim, M. J. (2003). A study on the Namakshin in Chosun dynasty: Focused on relation to 'Hamel'. *Journal of Fashion Business*, 7(2), 82-96.
- Korea Folk Dictionary* (1994). Seoul, Republic of Korea: Minjokmunhwasa.
- Lee, B. (1994). *Tae-Pyeong-Eo-Ram* [태평어람]. (REN, M., Ruiping, Z., & Li, J. G., Trans.). Hebei, China: Hebei Education Publishing House (Original work published 983).
- Lee, H. J., Kim, M. J., Seo, H. J., Jo, E. H., Park, S. H., Jo, J. H., An, H. K. (2007). *The Galmae-ri (Locality III) site: Text*. Chungnam, Republic of Korea: Institute for Archaeology and Environment Korea University.
- Motomura, M. (2010). About the footwear culture in Japan and South Korea: Acceptance and deployment of wooden footwear in Japan and South Korea. *The Paekche Yonku*, 52, 29-48.
- Nam, S. W. (1987). Study on Namagsin: Focus on origin, kind, production process.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Sadeahakbo* [師大學報], 22, 23-38.
- New Age Korean Dictionary* (2001). Seoul, Republic of Korea: Kyohaksa.
- Ogawa, Y. (1981). *The Principles of Costume transition* [服飾変遷の原則]. Tokyo, Japan: Bunka Publishing Bureau.
- Oh, W. C. (2013).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excavated wood products in The Asan Galmae-ri (Locality III) site.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 -Japan Ancient Wooden Artifacts* (pp. 171-190). Changwon, Republic of Korea: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Park, M. I. (1983). *A study on the Namaksin(Mok-geuk) in Korea: Centering on Cho-sun dynast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Pyeongyang-myeongseung-gujeok-bojonhoe (1936). Nang-nang Chae Hyeopchong [樂浪 彩篋塚]. Tokyo, Japan: Pyeon-li-dang.
- Seo, H. J. (2009). Baekje and ancient Japan [백제와 고대일본] [PDF document]. Bokcheon Museum. Retrieved from http://bcmuseum.busan.go.kr/05study/03_01.jsp?amode=view&id=201002051101080052&cpage=3
- Shinya, S. (2007). I. Wooden relics, *The Galmae-ri (Locality III) site: analysis and/or study* (pp. 1-4). Chungnam, Republic of Korea: Institute for Archaeology and Environment Korea University.
- Shuichi, Y. & Sasaki, Y. (2007). II. Wooden type analysis, *The Galmae-ri (Locality III) site: analysis and/or study* (pp. 5-28). Chungnam, Republic of Korea: Institute for Archaeology and Environment Korea University.
- University of Ulsan Museum (2008). *The Ga-dong site I: Gijang-gu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Ulsan, Republic of Korea: University of Ulsan Museum.
- University of Ulsan Museum (2008). *The Ga-dong site II: Gijang-gun Busan metropolitan city*. Korea, Ulsan, Republic of Korea: University of Ulsan Museum.
- Woo, B. C. (2013). Review of Gyeongsan Imdang-dong wetlands old ruins excavated wood products.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Japan Ancient Wooden Artifacts* (pp. 99-116). Changwon, Republic of Korea: Gay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Zhao, Y. (2012). On the wooden remains of early Liangzhu Culture [初論良渚文化木質遺存]. *Cultural Relics in Southern china*, 4th, 74-83.